

취업의 세일즈 포인트, 지식창업교육

전문가 칼럼 - 지식창업교육



오한석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정부가 연일 대학교육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프라임(PRIME)이라는 것으로 우리대학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려고 연일 바쁜 것 같다. PRIME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어로,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교육과 산업의 요구에서 생기는 미스매치부분을 해소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체질로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문제는 약 10년 전 전경련의 '대학졸업생 쓸만한 인재가 없다, 재교육하는데 2조 수천억이 든다'는 기사가 발단이 돼,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경련과 재경부가 공동으로 '대학의 사회기여도 평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의 핵심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학혁신이었고, 그 중 공학교육의 사회기여도 평가는 2007년부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산업체가 중요하다는 것과 교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산업계와 대학에서 실제 배출하는 인재 크게 차이

대학과 산업은 인재양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출발한다. 산업은 우선 대학이 길러낸 인재를 협업에 투입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나 하는 '유용성'에 중점이 있다면 대학은 졸업생이 졸업 후 어떻게 30년을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속가능성'에 교육의 고민을 두고 있다. 유용성과 지속가능성,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 조건이다. 정부는 이 교육 역량을 통해 양적 질적 미스매치의 해소뿐 아



나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을 인재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해, 대학생들의 사회진출로를 보다 쉽게 열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보다 교수의 입장이 우선이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 결과 프라임사업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과 대학이 말하는 인재의 동등성은 인재상과 학습성과로 소통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대응이 같으려면, 교육에 대한 상호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같아야 한다. 교육의 동등성(등가성)은 인재상과 학습성과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인재상은 진로의 의미로 일하고 싶은 업무분야를 특징지우는 데 비해, 학습성과는 그 분야의 업무수행역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학인증에서 대학교육의 인재상이 엔지니어라면 공학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 등 채용 공고가 나는 곳마다 지원서를 내는 것 이 아니라 설계분야 모집이 있는 곳에 지원서를 접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교육일 것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유용성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재상과 학습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 밖

에 없다.

지금의 창조경제처럼 지식기반사회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부시절에 사회폐리다임이 바뀌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싶어 2002년 국제특허법무연수원에서 지식재산관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이 인연이 돼 2004년부터 '특허와 지식재산' 과목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매년 수상자를 내고 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책 한권을 읽는 독서포럼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이 두 가지를 주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 임원 면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개 면접이 끝나고, 원하는 기업의 합격증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처음엔 학생들이 잘하니까 붙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공통적으로 취업이 잘 되어 면접내용을 물었더니 학생들은 '내가 직접 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

느냐?' 등을 물어봤다고 답했다.

결국 전자에서 논의한 문제해결능력이 있느냐를 인터뷰한 것이다. 또 독서포럼에 대해서도 "어떤 책을 읽었느냐? 책은 누가 선정하느냐? 기억나는 문장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즉, 자신을 관리하고, 관심있는 분야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췄느냐를 살펴본 것이다.

문제해결역량은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이고 지속가능성은 갖춰야 할 충분조건이자 기본자세다.

수상자들은 기술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전공분야의 기술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이정도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 본다. 그런가 하면 기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4학년인데도 취업지원서를 넣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

이들 모두에게 특허와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고, 전공지식의 심화의 필요성과 활용의 중요성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이에 점차 확대해 아이디어에서 창업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지식창업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부터 국제캠퍼스에 개설하고, 서울캠퍼스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면에서 이어짐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7명 논자들의 에로스 예찬론으로 이루어진다. 파이드로스는 명예심과 욕기의 덕을 고취하는 에로스를, 파우사니아스는 훈의 덕을 함양하는 에로스를, 에리시마코스는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 원리로서의 우주적 에로스를,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의 상실한 본성을 치유하는 에로스를, 아가تون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서의 에로스를 찬양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대목이다. 변증술가답게 소크라테스는 아기론과의 문답식 논의를 통해 에로스에 대해 논의하면서, 에로스란 '그 스스로가 아름다움이 부족하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만테이아의 여인 디오토미에게 얻은 지혜를 전하는 방식으로 포로스와 페니아의 일화를 가져와 에로스 안에 충족과 결핍이 동시에 있다고 말한다. 에로스는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서 좋은 것을 영구적으로 가



지려는 욕망이다. 또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욕망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을 통해 충족되며 아름다움의 출산은 불사를 얻는 방식이다. 불사를 얻는 보다 좋은 방법은 몸의 출산이 아닌 정신의 출산, 즉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에로스 안에는 풍요로운 충족감과 더불어 궁핍한 결여

감이 언제나 공존한다. 결핍은 욕망의 동인으로 에로스를 유발하며 이런 에로스는 완성을 향해 움직이면서 완전성의 영속화를 욕망한다. 결국 항상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이 에로스는 완성자가 아니라 미완성 상태의 중간자일 수밖에 없고, 가멸과 불멸 사이의 정령이자 다이몬(daimon)이다. 그러나 에로스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움직인다. 무지에서 지혜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완전함에서 완

참여마당

박진영
경영학과 2014



해외여행, 당신은 안전한가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이 각종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외국 여행지를 배경으로 두는 경우가 잦아졌다.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유럽의 건축물, 남미의 숲과 포근한 거리풍경, 중국의 유적지 등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해외여행이 빈번해진 풍조와는 달리 이에 응당 필요한 지식은 갖추지 못한 채 여행의 즐거움과 환상만을 가지고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은 대부분인 듯하다.

필자는 해외여행에서의 대표적인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보자 한다.

첫 번째로는 여권분실의 위험이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흔히 '공항'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여권을 잃어버린 직후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통칭 재외공관)에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금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여행 중 교통사고 등과 같이 범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먼저 재외공관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권분실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보다는 재외공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외공관에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하나하나 물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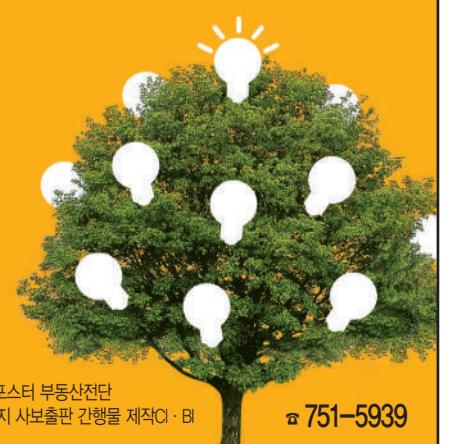
이외의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외공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여행지의 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따라서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 할 안전정보를 제공해주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방문을 추천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활동, 녹취기능을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02-3210-0404를, 해외에서는 현지국제전화코드를 누른 후 822-3210-0404를 누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행할 국가의 안전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우리 학교의 예비 해외여행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내용의 전부다. 요즘 '해외여행'이라는 주제에 매달려 자주 고민하다 보니 여행과 관련한 명문들을 아쯤잖게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괴테가 한 말이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한 말처럼 여행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여가활동이자 여행 자체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었다. 빈번해진 여행만큼이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춘 있는 예비 여행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이·비
751-5939